

일본, 노후 공동주택 정비 및 유지·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실시

https://www.mlit.go.jp/report/press/house06_hh_000184.html

https://www.kenken.go.jp/mansion_s/offer2.html

일본 국토교통성과 건축연구소(BRI)는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적절한 유지·관리와 장수명화를 위한 리모델링,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‘맨션 재고 장수명화 등 모델 사업(マンションストック長寿命化等モデル事業)’을 올해부터 시행한다. 일본의 맨션은 한국의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로, 일반적으로 중고층의 철근·콘크리트 구조의 공동주택을 일컫는다.

BRI의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맨션 재고는 655만 호로, 일본 국민의 10% 이상이 맨션에 거주하고 있다. 이 중 준공한 지 40년 이상 된 맨션이 81만 호이며 10년 후에는 198만 호, 20년 후에는 367만 호로 급증할 전망이다. 맨션 재고 장수명화 등 모델 사업은 맨션 재생을 위한 프로젝트를 공모로 선정해 정부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수집하고 보급하는 것이 목적이다.

사업 공모는 두 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▲장수명화를 위한 리모델링, 재건축을 시행하기 전 조사·검토 등을 돕는 ‘계획 지원형’과 ▲장수명화를 위한 리모델링, 재건축 공사 실행 단계를 지원하는 ‘공사 지원형’이 그것이다. 지원 대상은 구분 소유자 10인 이상의 맨션으로,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 등에 관한 성령(省令)의 내용연수에 2분의 1을 경과한 것 등이다. 계획 지원형은 1건당 500만 엔, 공사 지원형은 조사설계계획 비용과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선진적인 방안에 대한 비용 등 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의 3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.

국토교통성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제1회 사업에 대한 공모에 들어갔으며, 8월 초 총 4개의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. BRI는 해당 사업의 목적이 ‘전국 맨션의 재생에 확대·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찾는 것’에 있는 만큼 제안 내용이 구체적이고 선도적이며 범용성이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를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.



제1회 맨션 재고 장수명화 등 모델 사업에 선정된 대상지

출처: 일본 국토교통성, (2020). 「マンションストック長寿命化等モデル事業」の採択プロジェクトを決定しました. 8월 5일 보도자료.